

작은집에 햇볕한줌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사업보고서

2004 * 2018



CONTENTS

작은집에 햅볕한줌

04 발간사 _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05 축사 _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사업 History

08 사업목적 및 목표

09 주요 사업내용

11 지원현황

지원 Story

20 나에게 작은집에 햅볕한줌이란?

23 INTERVIEW

27 사업참여자 STORY

30 사업담당자 STORY

“집(家)”을 논하다!

34 수행기관 Q&A

42 심사위원 심사후기

46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 칼럼 – 사업의 함의

*동 사업은 2004년 7월 아름다운재단 주거영역사업 기금으로 조성되어 배분이 시작되었으나

협회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지원은 2007년으로 사업보고서는 2007년부터 기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은집에 햇볕한줌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사업보고서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권리이자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주거의 권리”



남 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문제로 여기는 부분이 주거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건강한 성장의 토대가 되어야 할 주거문제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지원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해도 월세, 관리비 등을 지속

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면 다시 주거빈곤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거빈곤 문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고 악순환에서 벗어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07년부터 12년 간 아름다운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집에 햅볕한줌」이라는 사업명처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1,500여명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사업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과 우리 협회가 함께한 지난 12년 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주거 지원사업 「작은집에 햅볕한줌」의 성과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주거’가 갖는 중요성을 잘 알기에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2018년을 끝으로 긴 여정이 마무리 되지만 12년이라는 시간동안 동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동, 청소년들이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굳은 의지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아름다운재단과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해준 사회복지관 담당 실무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별하고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질적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햅볕한줌」은 일단 종료되지만, 정부지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아직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거빈곤 가구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권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축사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누구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주거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은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 상황에 몰리는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전문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개선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체계적 노력도 함께 해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불안한 마음에 방황하던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위급한 삶의 고비에 있던 아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거리로 내몰릴까 마음 졸이던 아이들은 누구라도 소망하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 주거지원 정책 또한 변화해 왔고, 이로 인해 본 사업 또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 주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며 현장에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연결해 주신 담당 실무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을 믿고 소중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셨던 뜻있는 분들의 참여와 헌신에도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가는 기간이 위험에 노출되고 아픈 기억을 축적하는 사각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집이 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거 권리에 대해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세밀한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



작은집에 햇볕한줌

01

사업 HISTORY



사업 목적 및 목표



주요 사업내용



지원현황

□1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 *

[사업 HISTORY]

사업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목표

- ①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돋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 ② 지원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킨다.

사업내용



[신청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지원대상]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자녀가 24세 이하의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실질적 소년소녀가장이란?

-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 2) 부모(한부모),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지원연도	지원내용			비고
2007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료 *2007년 5월~2008년 4월 임대료 및 관리비			
2008	일반지원	임대료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시 인상분 추가 지원	
		관리비	*선정가구 3개월 평균 관리비 대비 월 최대 10% 한도내 추가 지원	긴급지원 추가
		연체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지원 *5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50만원 초과 : 50만원 + 초과금액의 50% 한도내 추가 지원	
	긴급지원	*연체 임대료 및 연체 관리비 전액 지원		
2009	일반지원	임대료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시 인상분 추가 지원	
		관리비	*선정가구 3개월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관리비 추가지원 산정방법 변경
		체납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지원 *5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50만원 초과 : 50만원 + 초과금액의 50% 한도내 추가 지원	
	긴급지원	*체납 임대료 및 체납 관리비 지원		
2010 ~ 2011	일반지원	임대료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시 인상분 추가 지원	
		관리비	*선정가구 3개월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긴급 주거비 추가지원
		체납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지원 *5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50만원 초과 : 50만원 + 초과금액의 50% 한도내 추가 지원	
	긴급지원	*체납 임대료 및 체납 관리비 지원 *긴급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연도	지원내용			비고
2012 ~ 2013	일반지원	임대료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시 인상분 추가 지원	평균 관리비 산정기간 변경
		관리비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물가인상을 반영 월 10,000원 추가 지원	
	긴급지원	체납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지원 *5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50만원 초과 : 50만원 + 초과금액의 50% 한도내 추가 지원	
			*체납 임대료 및 체납 관리비 지원 *긴급 주거비 지원	
2014 ~ 2016	임대료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시 인상분 추가 지원	긴급지원 종결
	관리비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물가인상을 반영 월 10,000원 추가 지원	
		체납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지원 *5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50만원 초과 : 50만원 + 초과금액의 50% 한도내 추가 지원	
2017 ~ 2018	임대료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시 인상분 추가 지원	체납료 전액지원
	관리비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물가인상을 반영 월 10,000원 추가 지원	
		체납료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전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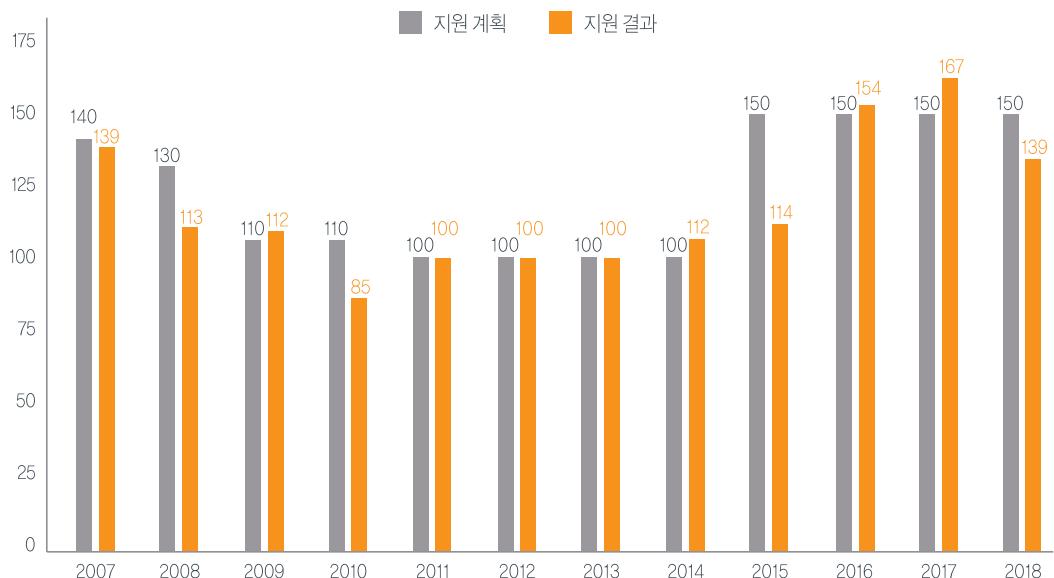
[소득기준]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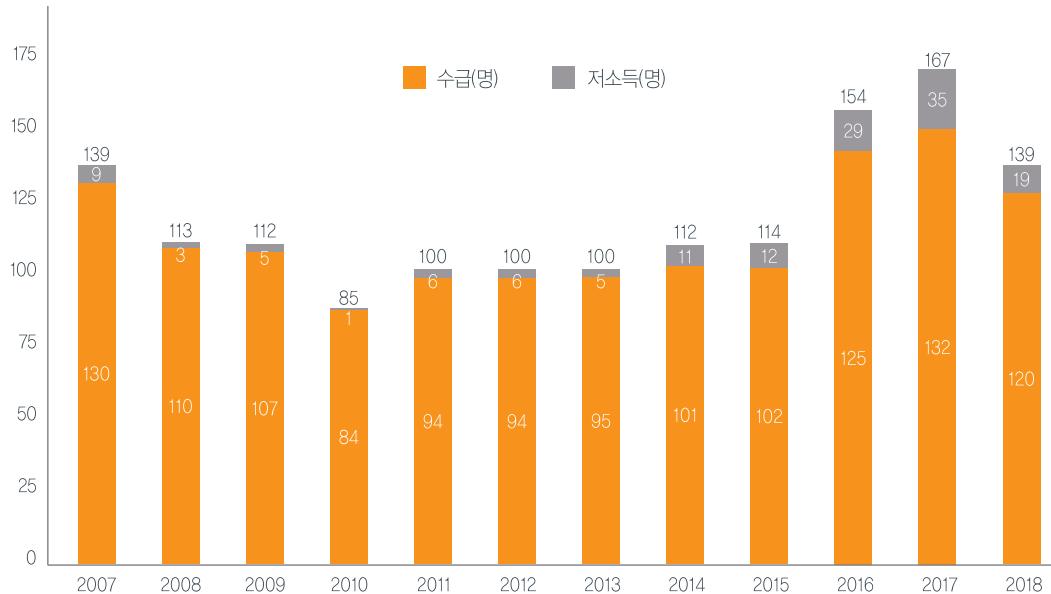


[지원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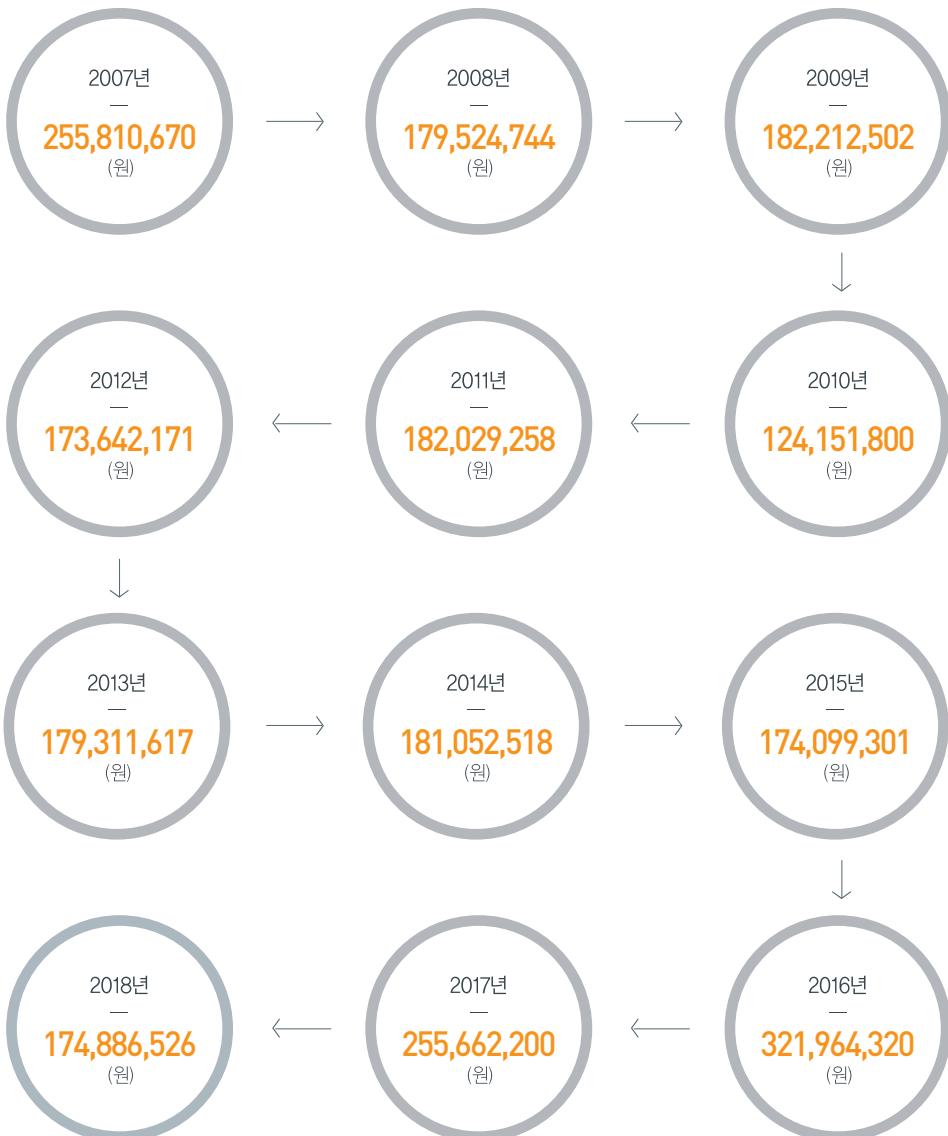
[지원가정 경제상황]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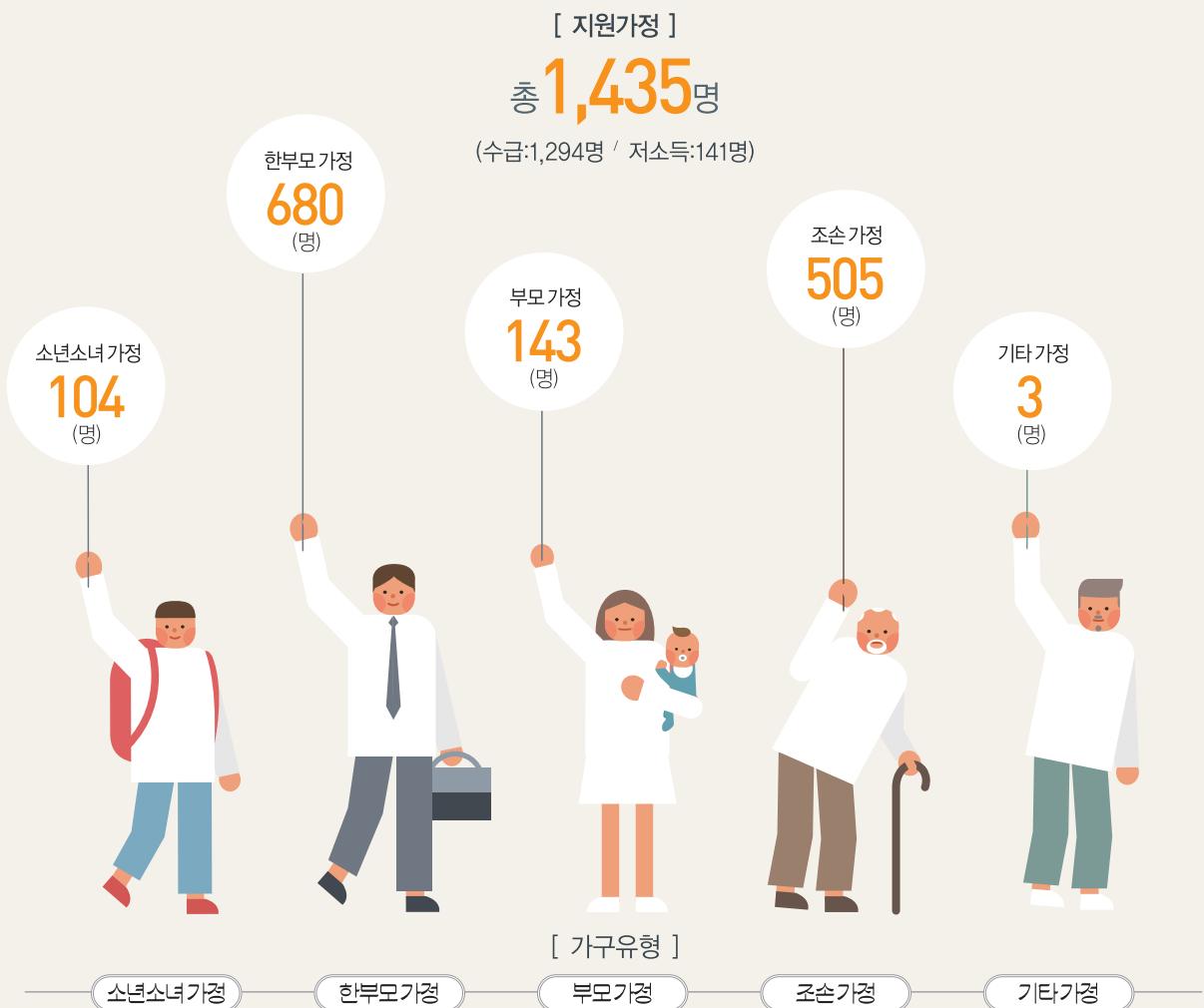


[지원예산]



숫자로 보는 작은집에 햅볕한줌

[2007~2018 사업현황]



총 지원예산
2,384,347,627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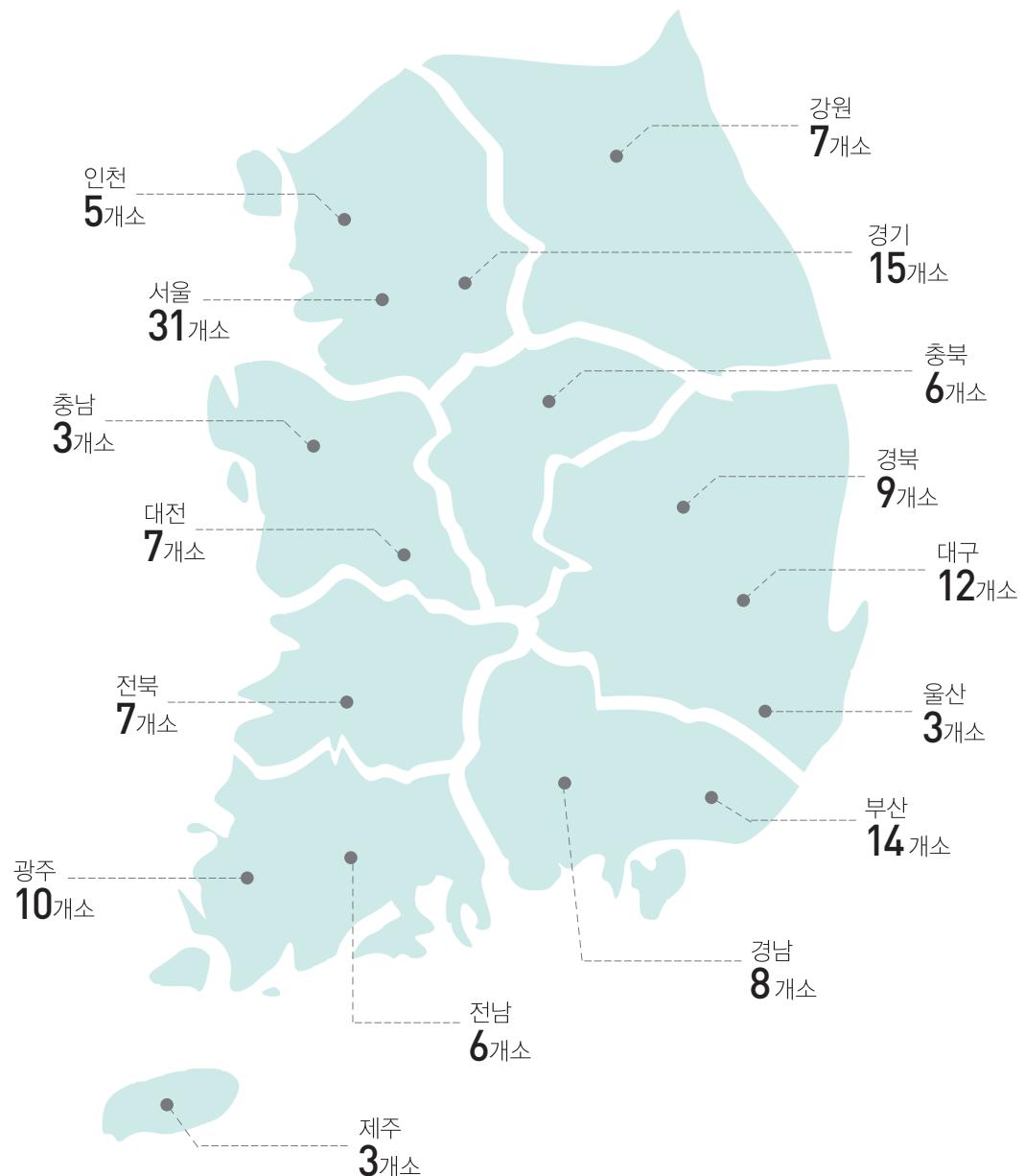
[주거형태]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기타





[참여기관]



[지역별 참여기관]

강원도

동해종합사회복지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가야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덕유종합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경상남도

가곡종합사회복지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마산중리종합사회복지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경상남도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경상북도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김천부곡종합사회복지관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야사종합사회복지관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역시

각화종합사회복지관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대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증리종합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별 참여기관]

부산광역시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중앙사회복지관

전라북도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정읍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주학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명화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선의과학종합사회복지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

서산석림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충청북도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증평삼보종합사회복지관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증주종합사회복지관

전라북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작은집에 햅볕한줌

02 작은집에 햅볕한줌 **지원 STORY**



나에게 작은집에 햅볕한줌이란?



INTERVIEW



사업참여자 STORY

“

사업담당자 STORY

나에게 **작은집에 햅볕한줌**은 _____이다.



나에게 **작은집에 햇볕한줌**은 _____이다.

 <p>따뜻한 햇볕 속 피어난 희망</p> <p>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p>	 <p>햇볕 한줌에 큰 행복</p> <p>안심종합사회복지관</p>	 <p>성주신</p> <p>월성종합사회복지관</p>
 <p>햇살 가득한 주말 아침</p> <p>황금종합사회복지관</p>	 <p>퇴거의 위기에서 찾은 희망의 빛</p> <p>중리종합사회복지관</p>	 <p>햇살같은 고마움</p> <p>동삼종합사회복지관</p>
 <p>감사함</p> <p>월평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p>	 <p>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로!</p>	 <p>고마운 사람</p> <p>와치종합사회 복지관</p>
 <p>햇볕한줌</p> <p>강남종합사회복지관</p>	 <p>가족들의 보금자리 지키미</p> <p>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p>	 <p>희망집 프로젝트</p> <p>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p>
 <p>큰 울타리</p> <p>우면종합사회복지관</p>	 <p>키다리 아저씨</p> <p>세회종합사회복지관</p>	 <p>천국</p> <p>상동종합사회복지관</p>

나에게 **작은집에 햇볕한줌**은 _____이다.

 <p>희망의 창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밑천</p> <p>세화종합사회복지관</p>	 <p>이른아침 떠오르는 태양</p> <p>미평종합사회복지관</p>	 <p>따뜻한 손길</p> <p>세화종합사회복지관</p>
 <p>항상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들</p> <p>상동종합사회복지관</p>	 <p>따뜻한 둑지만들기 프로젝트</p> <p>상리사회복지관</p>	 <p>함박웃음, 무지개, 안개, 가족</p> <p>쌍봉종합사회복지관</p>
 <p>아랫목, 이브자리</p> <p>쌍봉종합사회복지관</p>	 <p>당신을 응원합니다!</p>	 <p>네잎 클로버</p> <p>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p>
 <p>가장</p> <p>(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p> <p>원광종합사회복지관</p>	 <p>전기장판</p> <p>충주종합사회복지관</p>	 <p>장학금</p> <p>(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p> <p>원광종합사회복지관</p>
 <p>삶의 원동력</p> <p>내서종합사회복지관</p>	 <p>끌이 없이 컴컴한 터널을 비추는 작은 등불하나</p> <p>해남종합사회복지관</p>	 <p>후원의 손길</p> <p>두송종합사회복지관</p>

Interview

소년소녀가정 주거비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인터뷰

즐거운 곳보다 더 즐겁게 희망이 자라는 집

*

지영 / 보배 (가명)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대상자

글 • 박효원
사진 • 임디윤

“동생은 아직 어린데... 친구들처럼 편하게 과자나 햄버거 먹고 싶을 때 그럴 수가 없죠. 아이스크림 사주면 제일 싼 거를 고르고, 햄버거를 사줘도 한참 메뉴판을 보고 서있어요. 뭐가 제일 싼 지 계산하느라 그런 순간이 더 비참한 것 같아요.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보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영이(가명)는 또박또박 차분한 목소리로 주거비 지원을 받은 이후 달라진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물이 새는 전기포트를 아껴야며 쓰다가 세일하는 전기포트를 큰 맘 먹고 사게 됐다. 큰 맘 먹고 동생에게 침대와 극세사 담요도 장만해줬다. 남들에겐 평범한 일일지 몰라도 지영이네 가족은 큰 맘을 먹어야 하는 일이다. 그래도 이제는 가능한 일이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쌓여서 삶의 질도 높아졌다.

보배도(가명) 역시 마찬가지다. 발목을 크게 다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갈 때도 택시를 타기는 힘들었다. 사이버대학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 놓고 물품이나 교재를 사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다운받아 교재를 읽고 시험을 쳤다. 이제는 가끔씩은 택시로 병원에 다니고, 때로는 디자인 교재도 사서 편하게 읽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4년째다. 영구임대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1년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임대료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들에게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은 빈 틈 없이 조여오던 삶에 트인 숨구멍 같은 것이다. 차가운 겨울 벌판의 칼바람을 지나면서 꺼내입는 장갑 같은 것이다. 아직 삶은 벅겁고 바람은 매섭지만 그래도 이 작은 구멍 하나, 장갑 한 켤레만으로도 이제는 좀 더 살 만 하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 이제 좀 살 만 하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그러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 집은 명절마다 윷놀이를 해” “그 집은 요즘 어때? 무슨 일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건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집은 곧 가족이고 가족은 집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집은 곧 자산이고 자산은 곧 집이기도 하�다. 부동산공화국

에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집값의 속도는 어쩌면 탐욕의 속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속도전에서는 늘 덜 가진 사람이 불리하다.

보배네 가족을 보자. 어머니와 동생까지 세 식구가 사는 이 집의 한 달 소득은 기초 생활수급을 통해 들어오는 100만원이 전부이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루푸스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몇백만원씩 의료비를 내야 한다.

집 관리비는 한 달에 많게는 20만원까지도 나온다. 가족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다가 루푸스 치료 때문에라도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틀어 따뜻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한 번씩 치료를 덜 받고 보배가 한 권씩 교재를 덜 사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 집을 잃게 될까봐, 보배네 가족은 늘 걱정이다. 오랜 세월 부채에 임대보증금이 걸려있는지라 어느 날 강제퇴거 명령이 날아오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이다. 이 작은 집은 보배네 가족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둥지이기 때문이다.



주거비 지원 이후... 달라진 가족들

여전히 두 가족의 삶은 어려워 보였다. 지영이는 뇌병변2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어머니 역시 건강이 안 좋다. 동생은 한참 성장할 중학생이라서 가족 중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다. 보배는 지적장애3급이다. 어머니가 앓고 있는 루푸스는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다.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지원이 가져온 변화는 작지 않았다. 일상이 달라지니 삶이 달라졌다. 지영이네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나고 삶이 안정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어머니였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 집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정리수납 자격증도 땄다. 집이 유난히 넓어 보인다 싶더니 깔끔한 정리정돈이 비결이었다. “시험에서 1개 틀렸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지영이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 2학년 1학기지만 학점을 대부분 이수 해서 조기졸업도 가능할 것 같다. 그는 참 단단해 보였다. “학점 잘 나왔느냐”는 질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면서 아무렇게 따져보고 있었다.



보배는 자격증도 따고 싶고 프랑스도 가고 싶은, 꿈 많은 전형적인 20대다. 자기만의 방도 절실히 때지만 작은 방 하나는 동생에게 주고 어머니와 한 방에서 지낸다. 방에는 어머니의 약병이 빼곡히 놓인 서랍장과 보배의 책상이 사이 좋게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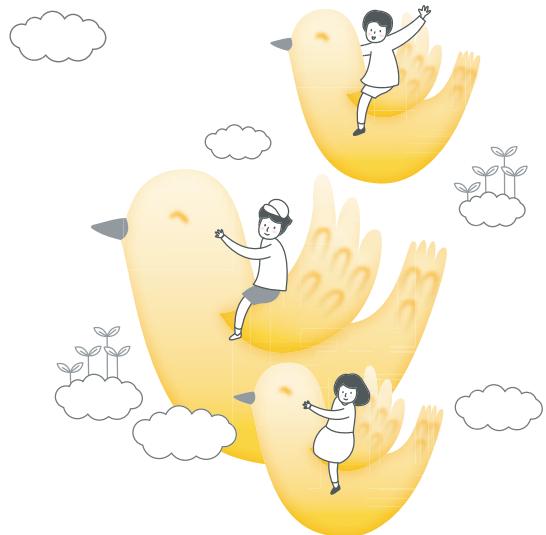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

이들에게 집은 많은 자산을 늘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 ‘사는 곳’이다. 그리고 이들의 집을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거비 지원은 그냥 얼마의 돈이 아니라 일상을 바꾸는 기회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이다.

집은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나의 소중한 꿈을 현실로 일구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라고 사람들은 노래를 한다. 이 작은 집들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즐거운 곳보다도 더 즐거운 집이 되기를 꿈꿔본다.

[사업참여자 STORY]

저도 언젠가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여러분! 저는 세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입니다.
늘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로모로 제 아이들에게 못해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도움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만 먹고 자는 등의 기본생활이라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회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허름한 창고에서 읍내 임대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게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저와 같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잃지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사랑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항상 이웃을 돌아보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 가정에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후원자 여러분
언젠가는 저 또한 반드시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사업참여자 STORY]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작은집에 햅볕한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 복지사님을 통해 동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설레어 했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항상 말일이 되면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한숨짓곤 했는데 지원 이후 저희 가정에는
웃음이 늘어나게 되었고 매달 지원해 주시는 10만원이라는 금액 그 이상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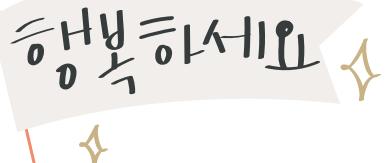
가난함을 느끼는 순간은 항상 작은 순간에서 찾아옵니다. 무더운 여름, 목이 고장나 돌아
가지 않는 선풍기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 바람을 쐬고 있을 때, 1,200원짜리 삼각김밥이
먹고싶어 고민하다 900원짜리를 고르는 동생의 모습을 볼때처럼 사소한 순간에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때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거비지원을 받은 후부터 저희 가족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에
선택의 폭이 커진 것입니다. 더위가 심했었던 후원을 받은 첫 해 여름, 더위를 많이 타는
남동생에게 개인 선풍기를 사주고 걱정말고 마음껏 쓰라고 했을 때 동생이 정말 기뻐하던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가족들이 새벽에 주위로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책
값과 실습비 걱정없이 자격증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되어 2018년 말에는 자격증
취득과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후원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가족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참여자 STORY]

힘들고 막막할 때
잡아 준 따뜻한 손길에
지금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재의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최○○입니다.

진작 감사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사업이 종료되는 지금에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허리디스크가 올 때까지 식당일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열심히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나 5년전 허리디스크가 심해지고 식당일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가 밀려 독촉장이 오는 일이 빈번했지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어 엄마가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치않게 사회복지관을 통해 주거비 지원 신청을 하게되었고, 지원 결정으로 가정형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막 대학교를 입학해서는 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많은 일바를 하면 내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생활비를 좀 더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고, 학업보다는 알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금은 학습지 알바와 국가근로 알바만하게 되었고 학교 생활 또한 전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올해 여름부터는 분식집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더 나은 형편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된 거 같습니다. 2년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여러모로 고생하신 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아름다운재단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웃음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사업담당자 STORY]

“

우리에게 보여준 관심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원자명 | 김OO]

법동종합사회복지관 * 전대호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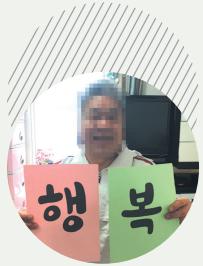
ct가정은 지난 임대료, 관리비 연체로 불안전한 주거권으로 나날이 생활하기 힘들어하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고 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사업 실패와 이혼, 어린 아들을 훈자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음주를 반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주거환경으로 한참 성장기인 ct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와 찾은 다툼으로 학교에서 징계가 열리는 등 경제적, 가족관계,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2년간 주거비 지원을 받은 이후... >

주거비 지원 사업 이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감소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ct는 친구들과의 다툼문제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농구부와 축구부 활동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범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주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단주에 성공하

였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생겼고, 몸이 더 회복된다면 근로활동을 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비로 내야 되었던 생활비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ct가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태권도에 보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덕구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가족심리치료 상담 중에 ct는 억제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야 되며, 태권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여 태권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ct의 가정은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고,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정 된 주거환경이 가정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된 ct가정은 작은 생활비로 주거비를 납부하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힘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거비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관심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업담당자 STORY]



“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명 | 서OO]

송광종합사회복지관 * 강승효 사회복지사

ct는 2012년 모친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소년소녀가장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로 오로지 정부보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는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생사도 알 수 없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세대로 주거비(월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관리비는 본인부담으로 미납되기 일쑤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생계를 훌로 꾸려가기에 부담이 커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을 통해서 일 년 간의 관리비를 지원받게 되어 걱정 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타 연주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차마 엄두내지 못했었는데 어린이재단 연계를 통한 결연 후원으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얼마동안은 기타학원의 배려로 학원 아이들을 가르쳐주며 무료로 수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은 자동차학과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에 실습을 다니게 되었고 작지만 스스로 소득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여 다음 주부터는 정상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동차 수리 기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ct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STORY]

“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자명 | 장OO]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 황혜진 사회복지사

ct의 가정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으로 부모님과 5남매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 직을 하며 가정을 책임졌지만 지인에게 사기 를 당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 날 위기의 상황에서 다행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7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좁은 14평의 집이지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남매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ct와 첫째, 둘째 동생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의료비 지출 또한 증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가족이 절망을 느끼던 때 2017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 정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햅볕한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1년간 관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ct의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에 7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원받게 되자 어머니는 관리비를 납부 해야 하는 돈으로 ct 남매의 학습비와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ct의 동생들은 8살과 7살로 한창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한글을 배우며 글씨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스케치북 한 권, 공책 한 권을 사는 것에도 경제적 부담을 느껴 늘 신문지나 달력을 찢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거비를 지원받는 1년간은 ct남매를 위한 학용품을 조금이나마 구매해 줄 수 있어 못난 어머니라고 자책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서 ct가정에는 대화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절망을 느끼던 그 순간, 사업 명처럼 아버지는 따사로운 햅볕이 내리쬐는 느낌을 받았다면 다시 한 번 힘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후원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져버리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술을 끊고 ct 남매를 하루에 한 번 꼭 안아주며, 식사 시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였고, 사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였던 불안이나 이상행동에 대해 다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을 받게 되었고 3명의 아동은 모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인 행동들이 장애로 인한 것임을 아버지는 받아들였고 어머니와 함께 부모교육, 부모상담에도 참여하며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ct와 동생들도 꾸준한 심리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불안증이나 이상행동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실질적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 집에 햅볕한줌』은 ct의 가족에게 지난 1년간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도움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동시에 조금만 형편이 나아진다면 후원자님들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작은집에 햇볕한줌

03

집(家)을 논하다!

Q&A

수행기관 담당자 후기



심사위원 심사후기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칼럼 _ 사업의 함의

작은집에 햇볕한줌

[집(家)을 논하다 |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경산시로부터 위탁받아 1997년에 개관하였으며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거비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업종료까지 시행하였으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Q1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게 되셨나요?

A. 주거지원사업은 연체로 인한 퇴거의 위험을 줄이고 아껴진 비용만큼 아동의 학업과 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거안정을 최대 2년간 유지할 수 있기에 그만큼 생활 안정이 될 수 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이 사업을 통해
기대효과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A. 일단 수혜대상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로 인한 생활의 안정이 컸습니다. 연체로 인해서 퇴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연체비를 지원하고 또한 최대 2년간 안정적 주거를 할 수 있어 대상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3 기억에 남는
지원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2015년과 2016년 지원을 받은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 가정입니다. 대상 가정은 경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의뢰된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분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족과도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이며,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부채로 인해서 생계비를 지원받으면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 관리비 및 부채 상환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심해진 상태였기에 희망복지지원단과 복지관에서 대상자 개입하여 주거비 지원 및 사례관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생활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적 대상자 개입하여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에게는 한국 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도 신청하여 선정되어 학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 A ①

Q4 현장에서 느끼시는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나
주거지원 영역 내
중요한 이슈가 있나요?

A.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어 임대료 납부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로 인해서 과거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관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 원으로 일반 전·월세 보증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주거에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5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주거지원사업에 있어서 임대아파트와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조손으로 한정을 하였는데,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아파트가 아닌 월세 대상자의 경우 정산서류 및 지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비 지원의 경우 중단된 시점에서 계속 의뢰가 오고 있으나 사업이 중단되어 아쉬움을 보이기에 기금확대 및 신규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새로이 대상자의 확대(범위의 확장)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Q6 이 사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A. 가족들과의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Q7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어려움이 있더라고 힘내시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복지관을 찾아주세요. 복지관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 12월 개관하여 현재 29년 동안 목포시 상동 외 5동을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주공단지에 설립된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특히 주거지원의 경우 2011년 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소년소녀가장뿐만이 아닌 조손 및 장애인세대 또한 지원이 가능하면서 총 17세대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참여욕구 또한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Q1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게 되셨나요?

A. 무엇보다도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공단지는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전체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적인 빈곤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대상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흙한기 및 흙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꾸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2 이 사업을 통해
기대효과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A. 지원 대상의 경우 대부분 사례관리 대상자로 난방비 및 임대료에서 절약한 금액을 통해 아동 학원비 및 식비에 보탤 수 있어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절약한 금액을 물품구입 외 개인적인 사치에 사용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기억에 남는
지원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모든 대상자들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으나 특히 김OO이라는 학생의 가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의 재혼, 어머니 사망 등 어린나이에 너무 많은 힘든 상황을 보고 겪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현재는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분식을 팔면서 OO이와 누나를 보살펴왔으나 그나마도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기관과 연계된 대상으로 주거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됨에 따라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Q & A (2)

Q4 현장에서 느끼시는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나
주거지원 영역 내
중요한 이슈가 있나요?

A. 임대료 및 관리비 보다 부담을 주는 부분이 가스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아무리 아끼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려고 해도 동파나 혹한기로 인해 조금씩이라도 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대상자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내는 것에 제약을 줍니다. 이에 저소득가정 대상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Q5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설문지 작성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이미 다양한 지원단체에서 설문지 작성보다는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담당 혹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시 1년 혹은 2년까지 연장사업이 아닌 아동의 나이가 일정나이에 도래할 경우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6 이 사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A.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함께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씩씩하게 밖으로 나오세요.

□3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작은집에 햇볕한줌

[집(家)을 논하다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대구 달서구 월성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월성3주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인 장기주공아파트를 관할 구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1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게 되셨나요?**

A. 실질적 소년소녀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데 그중에서도 주거불안에 따른 주거비 지출은 항상 최우선되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이 사업을 통해
기대효과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A. 지원세대들은 공통적으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퇴거 등의 주거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원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심리적 안정이 가정 큰 변화였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으로 기존 주거비 지출을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로 지출할 여유가 생겼다. 성적향상과 건강유지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Q3 기억에 남는
지원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조손세대로 할머니의 건강악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조건임에도, 신청에 비협조적인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차상위로만 보호받고 있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수급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소득 가정은 가계 총 지출의 30% 이상이 임대료, 관리비, 부채상환임에 따라 생계 및 교육비 지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엄마는 알콜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학대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전화와 한 번씩 방문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대상자는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엄마와 마주칠 기회도 줄어들어 심리적 불안도 많이 해소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상자 어머니에

Q & A ③

모니터링과 개입으로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게 할머니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4 현장에서 느끼시는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나
주거지원 영역 내
중요한 이슈가 있나요?

A. 최근들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지만, 임대료 납입하시는 세대만 혜택이 있지 기존 냉·난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여전히 부담이 되어 냉·난방을 하지 않고 저렴한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고 위험과 화재에 쉽게 노출되며,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Q5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주거비 지원이 좋긴 하였지만, 2년의 일시적인 지원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자재 또는 시설지원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Q6 이 사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A. 옛날 어른들은 집에 나쁜 귀신으로부터 집을 지켜주기 위한 성주신을 모셨습니다.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자들에게 2년이라는 기한이긴 하지만, 집을 지켜주는 성주신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Q7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햇볕이 비칠 날이 올 것입니다.

작은집에 햇볕한줌

[집(家)을 논하다 |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함께 사는 마을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의,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으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5년 10월 처음으로 2016년 주거지원 사업에 1명 선정되었고, 2017년 2명, 2018년 2명이 주거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매월 관리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Q1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게 되셨나요?

A. 경제적인 지지체계 확보를 통한 경제적 안정

경제적인 지지를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알콜 의존 감소

Q2 이 사업을 통해

기대효과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A.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불안정한 가계경제 및 심리·정서적 안정도모

Q3 기억에 남는

지원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최초에 지원받은 윤O열 학생 가정의 모인 김O숙님은 조현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생활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이 키우고자 매우 애를 쓰는 모습이였습니다. 본 기관의 2년 간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되어 신체적인 증상도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의 은빛어르신대학 미술교실 보조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관리 또한 잘하고 있으며, 본인보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지지하며 돋는데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고 할 수 있는 case입니다.

Q & A 4

Q4 현장에서 느끼시는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나
주거지원 영역 내
중요한 이슈가 있나요?

A. 저희 지역은 1개 읍, 8개면으로 이루어진 소도시 군단위로 임대아파트인 LH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는 주거지원사업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일반주택의 월세 세입자분들이 LH아파트 거주자 분들보다 더 많은 주거비 (임대료+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크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Q5 앞으로도 새로운 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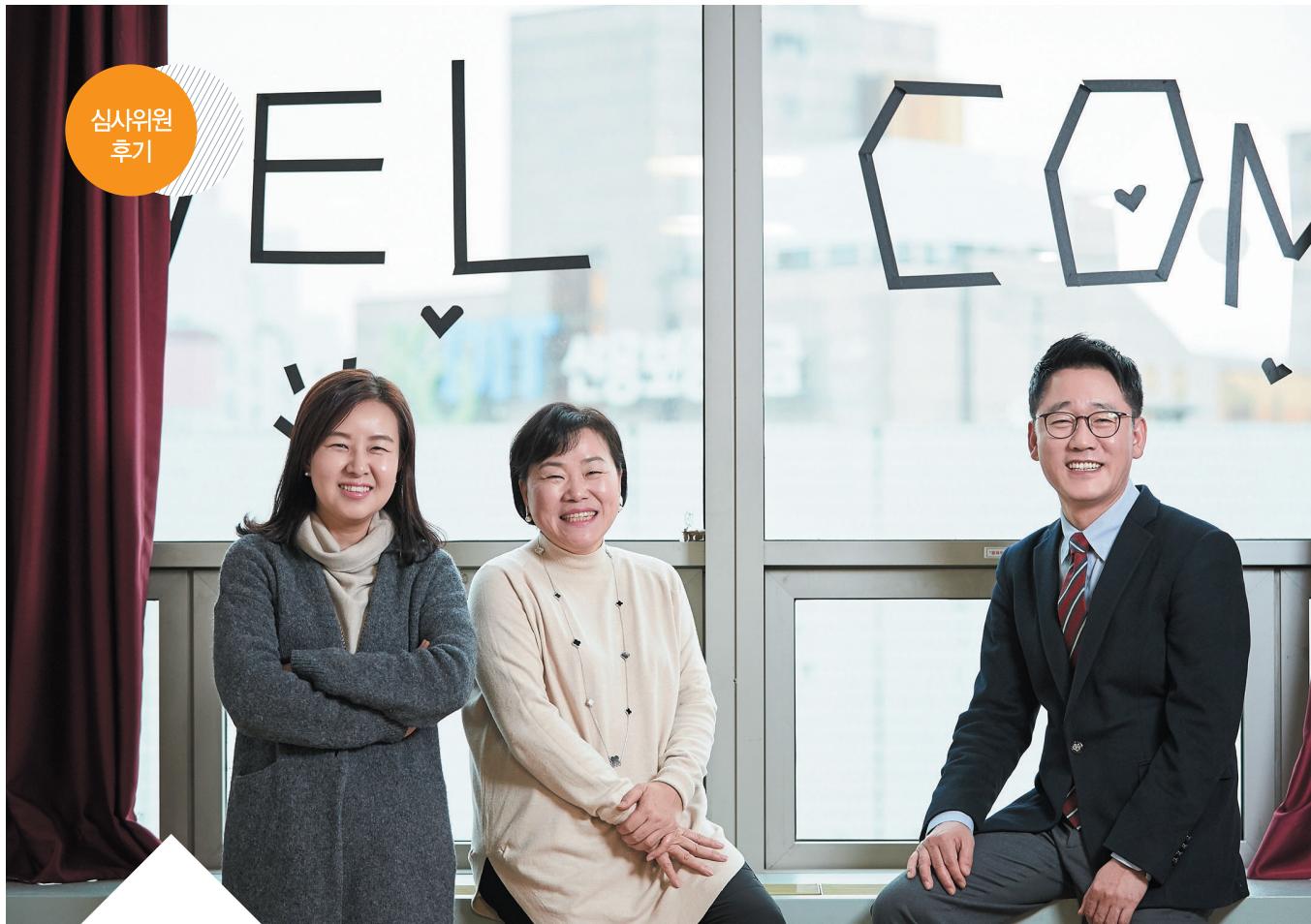
A. 사업주제 :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지원으로 1년 이상의 정기결연 방식으로 현재의 방식과 절차 등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예를 들면 별거상태의 한부모 가정 등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대상의 경우 기관의 보증으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Q6 이 사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A. “소리 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든든한 친구”
“마중물 역할을 해준 보금자리”
“평안한 집” 집은, 한 개인에게 있어 모든 시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인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서적, 환경적 지원을 동시에 해주니 삶에 있어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사업이며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Q7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에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 지금까지 잘 견뎌 와줘서 고마워요! 빠르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거에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너희와 함께 동행 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 가줄게!



[14년의 정든 집, '주거지원사업'을 마치며]

우리는 다시 **'집'**에서 만날거에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사업 종결 앞둔 심사위원들을 만나다

…누구나 최저주거기준에 달하는 주거의 권리를 가져야 하나, 아직 우리사회는 주거빈곤 특히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기만 합니다… 한때의 임대료 만 대납해주는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정책적으로 주거빈곤 아동의 문제가 제기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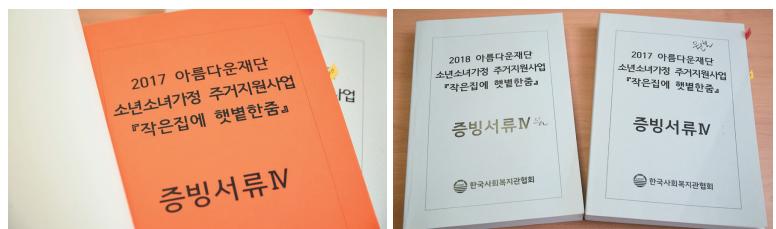
14년 전 아름다운재단이 처음으로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을 시작할 때의 사업



제안서 내용이다. 이 야심 찬 포부를 실천에 옮기느라 아름다운재단은 열네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쁘게 보냈고, 1500명이 넘는 가구를 지원했다. 초기에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들은 어느새 30대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2018년을 끝으로 길었던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거권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정부의 주거급여가 확대되면서, 보다 현장 수요에 딱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아쉬운 이별을 택한 것이다.

14년의 인연을 뒤로 한 채 이대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과 함께 했던 심사위원들을 만났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경기2본부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거지원 사업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꼼꼼히 사각지대의 사례를 들여다본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심사서류

심사기준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실제 삶에 기준을 맞추자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신청 서류는 꽤 심플한 편이다. 복잡한 서류는 자칫 당사자에게 장벽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에게도 행정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서류를 만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심사위원들에게는 꽤 고역이다.

심사위원들은 매년 심사 때마다 100건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 200건에 가까운 사례를 검토한다. 근무 시간 안에는 도저히 마칠 수 없는 분량이라서, 보통은 아예 집으로 서류를 가져간다. 박정순 본부장은 “밤에도 읽고 새벽에도 읽고 주말에도 읽는다”고 했다. 어느 한 사례도 허투루 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정말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탈락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래도 꼭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할 때 아름다운재단 심사위원들은 ‘지원의 시급성’을 먼저 본다. 이 과정에서는 제도적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쓴다. 행정서류상 보호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라면 행정적 문제로 사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의 마음 고생이 조금 줄어든 셈이다. 그래도 심사위원들은 사례를 읽다가 울컥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사례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이다. 서정화 센터장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원은 과연 햇볕 한 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고민스러웠다고 한다.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담당자들 역시 지난 14년간 같은 고민을 해왔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거쳐간 간사들은 무려 10명. 그 사이에 사업의 모양은 꽤 많이 바뀌었다. 지원연령의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최저 생계비 150%’에서 중위소득 80%로 늘렸다.

보다 안정적 사례 관리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도 맺었다. 박정순 본부장은 “이번에 돌아보니 아름다운재단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면서 계속 변화해왔다”고 말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상황에 아름다운재단의 기준을 맞추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햇볕 한 줌으로는 꽁꽁 언 몸을 다 녹일 수 없다. 지난 14년 동안 아름다운재단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단체와 기관, 지자체와 정부가 주거 지원에 나섰다. 임대주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주거급여가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긴급 지원의 속도도 빨라졌다. 그런데도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주거 문제가 복잡하게 얹혀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주거 지원사업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주거’가 갖는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더 강력하고 더 혁신적인 주거사업을 위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즌2에서 아름다운재단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서정화 심사위원



신용규 심사위원

신용규 사무총장은 ‘청년 주거’를 강조했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총장은 “누구도 이 문제에



손을 놓 대고 있는데, 아름다운재단이 꼭 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시원의 열악한 시설을 보강하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나 이동식 세탁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정화 센터장 역시 청년 주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고시원 건물을 사서 사회주택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다. 서 센터장은 또한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휴식 지원도 함께 주문했다. 주거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운영하려면, 현장의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해 지원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순 심사위원

박정순 본부장은 현 사업의 종결을 누구보다 아쉬워했다. 박 본부장은 “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지금과 같은 취지의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을 제안하기도 했다.

후속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조금씩 달라도 주거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비슷했다. 심사위원들은 “지금의 상황은 청소년 각자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입을 모았다. 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고, 지금의 상황이 지나가서 좀더 여유가 생기면 또다시 누군가를 도우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새로운 사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즌 2에서는 더 따뜻한 집, 더 행복한 집을 더 열심히 만들 것이다. 누구나 당연히 권리를 누리면서 서로 돋고 연대하는 것이 아름다운재단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글 • 박효원
사진 • 임다윤

[칼럼]

주거복지는 아직도 민간의 선도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성과에 부쳐 –

아름다운재단의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인 “작은집에 햅볕한줌” 사업이 10년의 여정을 마쳤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주거여건이 취약한 아동의 주거복지문제에 주목하여 사업을 개발하였고, 영구임대단지 등 주거취약계층과 밀접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관들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아동가정의 주거상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협력적으로 경주되었다. 나는 다행히도 이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원사업의 진행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물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의 절대빈곤을 어느 정도 극복해 왔다. 주거 생활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에 주택보급률이 71.2%였지만, 최근 조사결과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103.3%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제 달동네나 벌집과 같은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대개의 가구에는 화장실과 입식부엌, 온수의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 아침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수도가 없어 물을 길어야 하는 것은 옛날 일이 되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주택의 공급 및 현대화의 과정을 모든 시민이 주거생활에서 누리고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서울 지역에서 밀려나는 사람들도 많다. 만 명이 넘는 노숙인이 있고, 짐짓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숙소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로



남기철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는 일반 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주거에서의 문제는 단지 거주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와 빈곤은 양방향으로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주거취약성은 건강, 교육, 문화, 직업, 사회적 관계 등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 중 주거배제의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거문제로 인한 피해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걸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곤 한다. 여러 연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아동들이 심리적·행동적·사회적 부적응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나 학업성취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실증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주거권이 박탈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본질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가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주거기본법, 주택법, 주거급여법, 주거약자법,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등 여러 수준의 법령에서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원칙과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두기도 했다. 주거급여를 통해 빈곤 가구에 임차료나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원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제도와 정책은 아직 빈약하기도 하고, 공공정책이다보니 매우 경직적이다. 공공의 급여나 서비스 수급자격이 보호자에 대한 행정적 규정, 급여 기간, 지원 항목 등의 이유로 제약되기 일쑤이다. 물리적 주택이 아닌 주거생활의 다양한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와 사회적 관심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주거생활에서의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의 심사에 참여하면서, 최소한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사례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에

놀라곤 했다. 공공의 경직된 정책으로는 주거권 보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선도적인 민간의 지원사업 방식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였다. 민간의 융통성 있는 지원으로 지난 10년 간 많은 아동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는 주거생활의 편리성만을 높여 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쫓겨 날 걱정을 줄여주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대나 폭력의 위험을 경감시켜 준 것이다. 아동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사회적 가치는 엄청난 것이다. 게다가 이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퇴소아동이나 주거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공공지원의 시한을 연장하게끔 하는 공공정책 견인의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내었다.

이제 민간지원사업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일단락되지만, 아동의 주거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계속 견지해가야 할 과제이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연구자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그간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부자, 아름다운재단과 사회복지관 실무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모든 아동들이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함께 고민해가는 여정을 바란다.

Restart!

아동의 주거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계속
견지해가야 할 과제





작은집에 햇볕한줄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사업보고서

2004 * 2018



발행일 2019. 4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710호

전화 02-719-8939 팩스 02)6008-9221

홈페이지 www.kaswc.or.kr

디자인 도노디자인 02 2272 5009



작은집에 햇볕한줌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사업보고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국사회복지관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Centers